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0. 5. 23.(일)

보도자료

2010. 5. 23(일)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보보호팀 박철순 팀장
네트워크정보보호팀 구교영 사무관 (☎750-2755) eaglefree@kcc.go.kr

사전 대비차원의 인터넷침해 '관심' 경보 발령

정부는 최근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와 6.2지방선거 실시 등의 국가적 현안이 대두된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사이버공격 발생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23일(일) 사전 대비차원의 "관심"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킹, DDoS 등 인터넷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DDoS 공격용 악성코드 출현, 웹 변조, 이상 트래픽 증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DDoS 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신속히 확산될 수 있으므로 24시간 비상관제를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 ISP, 백신업체 등과 긴밀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6월 2일 지방선거 관련 사이트 및 주요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유포 여부와 DDoS 공격 등 사이트 접속장애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해당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PC가 DDoS 공격을 유발하는 좀비PC가 되지 않도록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을 열람하지 말고, 윈도우와 백신프로그램을 최신패턴으로 업데이트 해

주길 당부하였다.

향후 기술적인 지원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를 방문하거나, KISA e콜센터☎118에 전화하여 전문 상담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